

권두언

박 명 희

한국가톨릭호스피스협회 교육분과장 · 가톨릭대학교 강남성모병원 호스피스센터



한 국 가톨릭 호스피스협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자년 새해 회원님들과 그 가정에 늘 평화가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무자년 새해는 어느 해보다도 한국 호스피스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생각됩니다. 2002년 8월 정부에서 처음으로 말기 암 환자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제도화 의지를 표명한 이후 2003년과 2004년에는 제도화를 위한 기초 조사와 함께 시범 사업을 실시하였고, 2005년 이후부터는 호스피스 기관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08년에는 호스피스 법과 수가에 대한 기본안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는 호스피스에 종사하는 우리 모두가 기다려왔던 숙원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좋은 소식과 함께 한편으로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정부의 호스피스 법제화에 대한 발표 이후 호스피스 기관의 수가 급증하여 현재는 약 150여 개 기관이 활동하고 있으나 그 기관들의 시설과 인력, 서비스의 질이 기본적인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매년 암으로 사망하는 6만여 명의 말기 암 환자의 수에 비하면 호스피스 기관과 종사자의 수가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양적인 성장만큼 중요한 것은 질적인 성장입니다. 1965년 처

음으로 호스피스의 씨를 뿌리고 80년대 이후 호스피스활동을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던 선배 호스피스인(人)들의 진정한 호스피스 정신이 새로 생겨나는 모든 호스피스 기관의 종사자들 마음 속에도 이어져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호스피스 종사자를 위한 교육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호스피스 기관들에서는 대중들에게 호스피스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그리고 관심 있는 호스피스 종사자를 모집하기 위해 호스피스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호스피스 활동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기본적인 교육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내용에 치우쳐 있거나 필수적인 부분이 배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교육이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시기적으로도 일부 시기에 몰려 있어 호스피스에 관심을 갖고 있는 대중들이 교육을 받고자 할 때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다양한 기관들에서 수많은 교육생들이 배출되고 있지만 호스피스 활동을 하고자 원하는 이들에 대한 활용이 미흡하여 교육의 결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전국적으로 다양한 기관들을 회원으로 확보하고 있는 한국가톨릭호스피스협회 차원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간다면 좀 더 체계적인 호스피스 교육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수도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을 전국

지역으로 확산시켜 더욱 많은 대중들에게 호스피스
를 알릴 수 있도록 하며, 수도권외 교육 또한 각 기
관간 협의를 통해 계획적으로 시기를 나누어 교육
을 받고자 하는 대중들이 일년 내내 어느 시기이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합
니다. 마지막으로 협회 차원에서 교육 수요자에 대
한 적극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하여 좀 더 많은 환자
들에게 호스피스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야 할 것입니다.

이제 호스피스 법과 수가가 마련되면 더욱 많은
호스피스 기관이 생겨날 것이고, 그만큼 호스피스
종사자가 많이 요구될 것입니다. 진정한 호스피스
정신을 갖고 고통 받는 환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사랑과 봉사를 펼칠 참 호스피스인(人)을 양성하
는데 한국가톨릭호스피스협회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
입니다.



운전사의 슬픈 추억

스위스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어느 날 한 관광 버스가 손님을 싣고 관광지에서 돌아오는 길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관광객들은 모두가 지쳐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고개를 막 넘어가려던 순간, 운전사는 브레이크에 이상이 생긴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채로 내리막길에 접어든 버스는 속도가 점점 빨라졌고, 당황한 운전사의 떨리는 눈동자에는 경사가 급한 내리막길에 펼쳐진 다섯 개의 급커브길이 보였습니다.

버스에 점점 가속이 붙자 눈을 뜬 관광객들은 뭔가 이상이 생긴 것을 눈치 채고는 흥분하여 소리를 지르고 이성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운전사는 침착하고 조심스럽게 커브 길을 한 개 두 개 잘 운전해 나갔습니다.

마침내 그는 마지막 커브 길을 통과하였고 모든 관광객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좋아했습니다.

이젠 마을 길을 지나 반대편 언덕으로 올라가 차가 자연히 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저 멀리 아이들이 길에서 놀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깜짝 놀란 운전사는 경적을 울려 피하라고 경고를 하였습니다.

모든 어린이들이 그 소리를 듣고 피했지만 아직 한 아이가 그 자리에서 우물거리고 있었습니다.

순간 운전사는 관광객을 살려야 할지 저 어린아이를 살려야 할지 갈등하다가 결국 그 어린아이를 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버스는 예상대로 건너편 언덕에서 멈춰 섰습니다.

운전사는 차가 서자마자 그 아이에게로 뛰어갔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둘러서 있던 사람들이 "살인재! 살인재!" 하며 운전사에게 야유를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운전사는 아무 말없이 아이의 품에 고개를 묻고는 아이를 안은 채 흐느끼며 옆의 오솔길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은 쫓아가면서까지 "살인재! 살인재!" 하며 야유를 하였습니다.

그 순간 어느 젊은이가 외쳤습니다.

"모두들 그만뒀요. 소리지르지 말아요. 저 아이는 바로 운전사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그 아이는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아이였습니다.

[인터넷 발췌]